

# 고2문학 신사고

## 1.1.(1). 산수유나무의 농사 - 수능형 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  
 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1. <보기>를 바탕으로 이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자료 1>  
문태준 : 경북 김천 출생. 추풍령 황학산 오지 마을에서 태어나 유년을 그곳에서 보냄.
- <자료 2>  
문태준 시인은 어떤 것들이 단지 '있다'는 사실만을 지극하게 기록한다. 깨달음의 발설을 자제하고, 감탄문이나 느낌표를 아낀다. 혹은 그럴 때 아름다워진다. <중략> 그것은 그가 '나'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가능한 일이다.
- <자료 3>  
문태준은 지극히 일상적 차원에서의 자연을 그림으로써 관념화된 자연을 배제한다. 그는 과도하게 자연을 찬미하지도 않고 자연의 위대성을 과장되게 설명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그의 연술 방식으로 인해 문태준의 자연은 객관적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화되고 구체적인 자연으로 변용되는 것이다.
- <자료 4>  
문태준의 말 : “과거의 기억을 버리고 현재에 설 수는 없다. 유년의 추억은 내 시의 가장 주요한 재료다.”

- ① 이 시는 '나'를 직접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더욱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군.
- ② 산수유나무는 사람과 일체화되어 인간화되고 구체화된 자연의 모습으로서 변용되고 있군.

- ③ 시인은 봄이면 산수유 꽃이 많이 피던 황학산에서의 유년의 기억에서 시상을 얻고 있군.
- ④ 화자는 산수유나무를 통해 얻은 생각이나 느낌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절제하고 있군.
- ⑤ 그늘을 만들어 내는 산수유나무를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지나치게 예찬하지 않으면서 잘 나타내고 있군.

2. 이 시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무는 자기 몸으로 /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십삼 도  
 영하 이십 도 지상에 /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으로 서서 /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 받은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오 도 영상 십삼 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  
 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 아아, 마  
 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 꽃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 ① 이 시와 <보기>의 '나무'는 모두 봄에 꽃을 피는 존재이다.
- ② 이 시의 '나무'는 노란 꽃을 피움으로써 넓은 그늘을 만든다.
- ③ <보기>의 '나무'는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이다.
- ④ 이 시의 '나무'와 달리 <보기>의 '나무'는 상승적 이

미지를 강하게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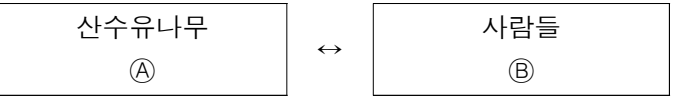
⑤ 이 시와 <보기>의 ‘나무’는 모두 대립적 대상을 통해 현실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다.

3. 다음 중 위 시의 다음 시행과 같은 표현 방법이 사용된 것은?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 ①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 당신은 늙은 비애(悲哀)다. / 푸줏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이다.
- ②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파르라니 깎은 머리 /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 두 볼에 흐르는 빛이 /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③ 흐르다 흐르다 목 메이면 /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 뺨 으스스리게 그리워 얼싸안고 /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 ④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 저 불 지난 뒤에 / 흐르는 물로 만나자. /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 올 때는 인적 그친 /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4. 이 시를 <보기>의 구조로 나타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그늘은 넓고 풍성하며, Ⓑ의 그늘은 좁아지고 말려든다.
- ② Ⓐ의 그늘은 부정적인 대상이지만, Ⓑ의 그늘은 긍정적인 대상이다.
- ③ Ⓐ와 Ⓑ의 그늘은 모두 다른 이에게 편안한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이다.
- ④ Ⓐ는 그늘을 만들기 위해 농사짓지만, Ⓑ는 Ⓐ의 그늘에 대해 불평한다.
- ⑤ Ⓐ는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라면, Ⓑ는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과 관련된다.

5. 이 시와 <보기>의 ‘그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나무는 / 실로 운명처럼  
조용하고 슬픈 자세를 가졌다.

홀로 내려가는 언덕길 / 그 아랫마을에 등불이 켜이듯

그런 자세로 / 평생을 산다.

철따라 바람이 불고 가는 / 소란한 마을길 위에

스스로 퍼는 / 그 폭넓은 그늘…….

나무는 / 제자리에 선 채로 흘러가는  
천 년의 강물이다.

- 이형기, ‘나무’

- ① 이 시와 <보기>에서 ‘그늘’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다.
- ② 이 시와 <보기>에서 ‘그늘’은 ‘고통, 슬픔’이라는 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③ 이 시와 <보기>에서 ‘그늘’은 희생하며 순교자적 삶을 사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④ 이 시와 <보기>에서 ‘그늘’은 ‘어둠’이라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 ⑤ 이 시와 <보기>의 ‘그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삶의 기쁨을 얻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6. <보기>를 참고하여 이 작품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산수유나무

층층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 꽃대의 끝에서 많은 꽃이 방사형으로 나와서 끝마디에 꽃이 하나씩 붙는 산형(繖形) 화서로, 3~4월에 잎보다 먼저 노란색으로 핀다. 열매는 길이 1.5cm의 긴 타원형의 핵과(核果)로 가을에 빨갛게 익는다.

- ① ‘노란 좁쌀’은 산형 화서인 산수유나무의 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군.
- ② 산수유 꽃과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동일화하여 ‘그늘도 노랗다’라고 표현한 것이군.
- ③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산수유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그늘이 ‘땅에서 넓어진다’고 표현한 것이군.
- ⑤ 산수유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겪는 고난의 과정을 ‘나무의 한 해 농사’로 표현한 것이군.

7. 윗글에 사용된 주된 표현 방법과 유사한 시는?

- ① 대설도 좋더라. / 성글어 좋더라. / 한사코 서러워 대숲은 좋더라
- ② 매미는 아는 것이다 / 사랑이란 이렇게 / 한사코 너의 옆에 붙어서 / 뜨겁게 우는 것임을
- ③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 / 늦은 봄 햇살을 등에 지고 / 낙타는 향시 추억한다. /
- ④ 나는 당신의 살아있는 연필 /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말로 / 당신이 원하시는 글을 쓰겠습니다.
- 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 삼천리 화려 강산의 / 을숙도에서 일정한 균을 이루며

8. 윗글과 <보기>의 ‘그늘’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 ① 윗글과 <보기>의 그늘은 모두 부정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
- ② 윗글과 <보기>에서 그늘은 사전적 의미인 어둠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 ③ 윗글과 <보기>의 그늘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사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④ 윗글과 <보기>는 그늘의 의미를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공존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윗글의 그늘은 긍정적이고 예찬적인 대상으로 <보기>의 그늘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대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9. 다음은 (가)를 감상한 후 토의한 것이다. 시를 감상하는 방법으로 그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희연 : 마음의 그늘 때문에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어.
- ② 민수 :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현대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 ③ 소라 : ‘그늘’윗글련이나 고난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배려 편안함 등의 긍정적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타인의 배려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이 강조되고 있어.
- ④ 재호 : 자연을 지극히 인간적으로 구체화 시키는 작가의 표현력이 돋보이는 시야. 자연을 통해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 ⑤ 가을 : 나는 산수유나무의 그늘과 같은 휴식처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10.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 무방비의 나뭇으로 서서 / 아 별 받은 몸으로, 별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 아아, 마침내, 끝끝내 /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 꽃피는 나무이다.

- ① 윗글과 <보기>의 나무는 모두 의인화되어 표현되고 있다.
- ② 꽃피는 나무는 윗글과 <보기>의 나무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 ③ 윗글과 <보기>의 나무는 모두 봄이 되면 꽃을 피워내는 존재이다.
- ④ 윗글의 나무는 꽃을 피움으로써 그늘을 만들고, <보기>의 나무는 꽃을 피움으로써 자신의 현실을 극복한다.
- ⑤ 윗글과 <보기>의 나무는 모두 대비되는 대상을 가지고 있다. 윗글에서는 마음의 그늘을 가진 ‘사람들’과 대비를 이루며 <보기>에서는 ‘겨울 나무’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11. 윗글을 <보기>의 구조로 나타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수유나무	사람들
㉠	㉡

- ① ㉠의 그들은 부정적인 대상이지만, ㉡의 그들은 긍정적인 대상이다.
- ② ㉠의 그들은 구체화된 대상이지만, ㉡의 그들은 추상적인 대상이다.
- ③ ㉠과 ㉡의 그들은 모두 타인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이다.
- ④ ㉠의 그들은 좁은 상태에서 넓어지지만, ㉡의 그들은 넓은 상태에서 좁아진다.
- ⑤ ㉠은 과거에 존재했던 그들로 ㉡는 현재에 존재하는 그들로 서로 대비를 이룬다.

12. 윗글의 시어 중 ‘사람들’과 성격이 가장 유사한 시어는?

- ①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를 놓고 /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 ② 가까워지다 보면 / 다시 / 날아가는 새
- ③ 우리 나라 나무들엔(민중) / 아픈 이름 너무 많다 / 이를테면 쥐똥나무 똥배나무 지렁쿠나무 / 모진 산비탈 / 바위틈에 뿌리내려
- ④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 모래알 같은 이름 하나 불러 본다 / 기어이 끊어 낼 수 없는 죄의 텃줄을 / 깊은 땅에 묻고 돌아선 날의 / 막막한 벌판 끝에 열리는 밤
- 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 방공호 위에 / 어쩌다 핀 /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다.

13. 윗글과 <보기>에 나타난 창의적 요소로 적절한 것은?

<보기>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알 얼굴 부비는 소리 후두둑 뛰어 내려 저마다 멍드는 소리 멍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 위로 살쭉살쭉 늦가을 햇볕 발 디디는 소리 먼 길 날아온 늙은 잠자리 채머리 떠는 소리 멧돌 속에서 껌질 타지며 가슴 동당거리는 소리 사그락사그락 고운 뽕가루 저희끼리 소근대며 어루만져주는 소리 보드랍고 찰진 것들 물속에 가라앉으며 안녕 안녕 가벼운 것들에게 이별인사 하는 소리 아궁이 불 위에서 가슴이 확 열리며 저희끼리 다시 영기는 소리 식어가며 단단해지며 서로 활아주는 소리 / 도마위에 다갈빛 도토리묵 한 모 / 모든 소리들이 흘러 들어간 뒤에 비로소 생겨난 저 고

요 / 저토록 시끄러운, 저토록 단단한

- ①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의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 ③ 보편적인 이미지를 환기하여 개성적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었다.
- ④ 대상을 의인화하여 각각 산수유나무와 도토리의 관점에서 인간들을 바라보고 있다.
- ⑤ 대조적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였다.

14. <보기>의 나무와 이 시의 산수유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 무방비의 나목으로 서서 / 아 벌 받은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 아아, 마침내, 끝끝내 /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 꽃피는 나무이다.

- ① 둘 모두 강한 의지를 지닌 존재이다.
- ② 둘 모두 순수한 정신을 지닌 존재이다.
- ③ 산수유나무는 나무와 달리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존재이다.
- ④ 산수유나무는 나무와 달리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고 있다.
- ⑤ 나무는 산수유나무와 달리 남다른 고독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15. ㉠과 <보기>의 ㉠, ㉡의 비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나는 ㉠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 ① ㉠과 ㉡는 모두 실연의 고통이 뒤따라야 한다.
- ② ㉠과 ㉡는 모두 타인을 위한 희생적인 마음이다.
- ③ ㉠은 긍정적 ㉡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은 농부의 사랑을, ㉡는 화자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이다.
- ⑤ ㉠은 다른 생명을 위한 베품이고, ㉡는 고통과 슬픔을 의미한다.

16.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고려한 것을 골라 묶은 것은?

<보기>

㉠ 일상적인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  
 ㉡ 대비되는 대상을 통해 대상의 미덕을 강조한다.  
 ㉢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대상을 통해 정서를 드러낸다.  
 ㉣ 사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7. 이 시와 <보기>의 내용을 설명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늦가을 배추포기 묶어주며 보니  
 그래도 튼실하게 자라 속이 꽤 찻다  
 - 혹시 배추벌레 한 마리  
 이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꼭 동여매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이나  
 배추벌레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  
 속은 점점 순결한 앞으로 차오르는  
 배추의 마음이 뭐가 다를까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보다

- ① 이 시와 <보기>의 화자는 '농부'와 같은 존재이다.
- ② 이 시의 '불평'은 <보기>의 '배추 물품'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 ③ 이 시의 '마음의 그늘'은 <보기>의 '사람 마음'과 그 의미가 서로 통한다.
- ④ 이 시의 산수유나무 '그늘'은 <보기>의 '배추의 마음'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 ⑤ 이 시의 산수유나무에게 '꽃'은 <보기>의 배추에게 '배추벌레'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 정답 및 해설

1	②	2	⑤	3	③	4	①	5	①
6	⑤	7	②	8	④	9	③	10	②
11	②	12	①	13	③	14	④	15	⑤
16	①	17	④	수고하셨습니다.					

### 1. <답> ②

이 시에서 산수유나무는 관념적인 자연도 객관적인 대상도 아니며, 인간화되고 구체화된 자연으로 변용되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산수유나무가 사람과 일체화된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이 시에서 화자는 겉으로 직접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작가는 유년의 추억을 창작의 주요한 재료로 삼는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산수유나무 꽃은 작가의 고향인 황학산 마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화자는 산수유나무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⑤ 화자는 그늘을 만들어 내는 산수유나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나 그 특성을 직접적으로 예찬하거나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2. <답> ⑤

이 시는 산수유나무 그늘이 주는 미덕을 표현하고 있으며, <보기>는 겨울을 이기고 꽃을 피우는 나무의 생명력을 그려 내고 있다. 또한 이 시에서는 ‘산수유나무’와 ‘사람들’이 대립적 의미를, <보기>에서는 ‘영하’와 ‘영상’, ‘무방비의 나목’과 ‘꽃피는 나무’가 대립적 의미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적 대상을 통해 부정적 현실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보기>뿐이다.

#### [오답 풀이]

- ① 이 시의 산수유나무와 <보기>의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있다.
- ② 이 시에서는 산수유나무의 꽃이 무성해져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 ③ <보기>에서 나무는 추운 겨울을 견뎌 내고, 봄을 맞아 꽃을 피워 생명력이 총만해 있는 상태이다.
- ④ <보기>에서는 ‘대가리 쳐들고’, ‘두 손을 올리고’, ‘밀고 올라간다’ 등에서 상승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상승적 이미지가 나타나는 시어를 찾아볼 수 없다.

### 3. <답> ③

㉠은 인간이 아닌 산수유나무가 인간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고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에서는 섬진강을 ‘목 메이며’, ‘그리워 얼싸안고’와 같이 인간처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당신은 늙은 비애’, ‘푸룻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에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 ②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 ⑤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에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 4. <답> ①

이 시에서는 ‘산수유나무’와 ‘사람들’이 대조를 이룬다. 산수유나무는 농사를 지어 넓고 풍성하게 그늘을 만들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한다.

### 5. <답> ①

이 시에서 ‘그늘’은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 휴식, 쉼터,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 드러내지 않은 덕행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또한 <보기>에서 고통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나무가 주는 ‘그늘’은 위안, 또는 폭넓은 포용력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늘’은 ‘어둠’이나 ‘밤’, ‘겨울’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와 <보기>에서 ‘그늘’은 긍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 6. <답> ⑤

(가)에서는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농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나무의 한 해 농사’인 그늘은 산수유나무의 노란 꽃이 만들어 낸 것이다. 따라서 ‘나무의 한 해 농사’가 산수유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의 고난의 과정을 표현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7. <답> ②

윗글은 전체적으로 인간이 아닌 산수유나무가 인간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고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는 매미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뜨겁게 우는 것이라며 매미를 사람처럼 의인화 하여 표현하고 있다. ① ‘한사코 서러워 대숲은 좋더라’ 역설법, ③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 직유법, ④ 나는 당신의 살아있는 연필’ 은유법, ⑤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 반어법에 해

당한다.

8. <답> ④

윗글과 <보기>시의 그늘은 모두 휴식, 쉼터, 편안함,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시어들이다. 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시의 의도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9. <답> ③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작품 안에서 감상하는 내재적 관점과, 작품 밖에서 사회, 작가, 독자에 중점을 두어 감상하는 외재적 관점이 있다. ③은 ‘그늘’이라는 시어에 의미를 살피는 과정으로 내재적 관점으로 시를 감상하고 있으며, ①은 수용론적 관점, ②반영론적 관점, ④표현론적 관점, ⑤수용론적 관점으로 외재적 관점에 해당된다.

10. <답> ②

윗글에서 산수유나무는 꽃을 하늘에 피운다. <보기>에서 나무는 자기 몸으로 스스로 꽃피는 나무가 된다. 즉, 꽃피는 나무는 <보기>에서 나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노력한 이유이자 목적으로 고통의 극복을 통해 자기를 완성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윗글에서 산수유나무의 꽃은 화려한 1차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화자는 꽃보다 꽃을 통해 땅에서 만들어지는 그늘에 주목하고 있다.

11. <답> ②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눈에 보이는 그늘이지만, 사람들 마음의 그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이다.

12. <답> ①

산수유나무 그늘에 나오는 사람들은 ‘배려, 편안함, 음덕’등을 상징하는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다.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시어는 소외된 이웃으로 힘들게 굴을 팔고 있는 할머니의 굴을 사면서 굴값을 깎으며 기뻐하는 ‘이기적인 너’로 볼 수 있다. ② 화자가 욕망하는 대상, ③민중, ④그리움의 대상, ⑤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13. <답> ③

주로 보편적인 이미지를 환기하는 그늘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여린것이라는 도토리묵의 이미지를 깨고 시끄럽고 단단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

14. <답> ④

이 시에서 산수유나무는 그늘을 드리움으로써 다른 존재를 배려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따라서 산수유나무는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를 나타낸다. 그러나 나무는 시련이나 고난 속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15. <답> ⑤

㉠은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를 의미한다. <보기>의 ㉠은 삶의 고통이나 실연을, ㉡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한다.

16. <답> ①

이 시는 다른 생명을 배려할 줄 아는 산수유나무와, 이기적인 사람들을 대비하여 산수유나무의 미덕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산수유나무를 한 해 동안 그늘 농사를 짓는 ‘농부’에 비유한 ‘참신한 발상’은 일상적인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 가능하다.

17. <답> ④

이 시에서 ‘산수유나무 그늘’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는 <보기>에서 배추벌레가 나오지 못할까 봐 배추를 꼭 동어매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배추벌레에게 먹고도 다시 차오르는 ‘배추’의 마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